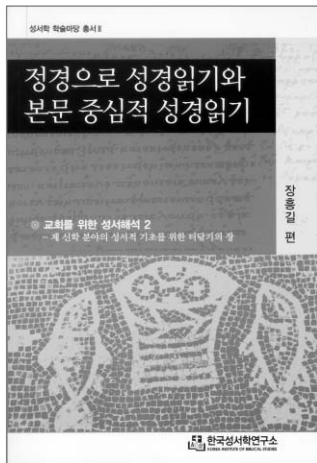


『정경으로 성경읽기와 본문 중심적 성경읽기』
- 성서학 학술마당 총서 Ⅱ

장흥길 편, 한국성서학연구소, 167쪽, 7,000원



한국성서학연구소(이사장 : 이연옥 박사, 소장: 장흥길 박사[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는 매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제 신학 분야의 성서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터딤기의 장으로서 “성서학 학술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정경으로 성경읽기와 본문 중심적 성경읽기』는 제2회 성서학 학술마당의 자료집을 강사들의 검토를 거쳐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 두 발제자는 한국 교회에 유용한 ‘교회를 위한 성서해석’을 제시한다는 학술대회 목적에 부합되게, 한국 교회의 성서해석에 적절한 방법론과 이를 신구약 본문 해석에 적용한 실례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책의 첫 번째 부분은 교회를 위한 성경읽기 방법으로 ‘정경해석 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제시한 배정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의 논문과 실례로서, 먼저, ‘역사비평 방법으로 성경읽기’와 ‘정경해석 방법으로 성경읽기’의 차이를 밝힌 다음, 서구의 ‘정경해석 방법으로 성경읽기’를 소개하고, ‘성경 해석에서 정경해석방법의 적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위한 정경해석방법의 적용’에서 구약 성경의 세 본문 단락인 시편 126편 1-6절, 이사야 40장 27-31절, 에스라 1장 1-6절 본문을 정경해석 방법을 적용한 본문 읽기의 실례를 보여 주었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은 교회를 위한 성경읽기 방법으로 ‘교회를 위한 복음서 해석’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 양용의 박사(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의 논문과 실례이다. 양용의 박사는 자신의 연구발제에서 먼저 복음서 해석을 위한 기본 원리를 밝힌 다음, 그 구체적 지침을 비교적 소상하게 다루어 소개하였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위한 복음서 해석의 실례로, 마가복음 11장 12-25절 단락을 해석하는 실례를 보여 주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논문과 본문 연구의 실례에 기초하여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 단락에 대한 설교문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는 구약성경을 신앙공동체의 정경으로 읽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실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문 중심적인 복음서 해석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적절한 실례에 기초하여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본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훌륭한 모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